시선

사설

‘찾아가는 진정성’, 그것이 오늘의 소통이다

대학이 아무리 소통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 구성원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가려 한다면 거기에선 그 어떤 생산적 논의도 이끌어낼 수 없다. 결국, 소통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 맞는 형식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과 구성원 간에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통을 통해 구성원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과 자각을 갖게 되고, 이로써 대학에 대한 로열티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강한 로열티가 대학 발전의 가장 든든한 한 축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프라임사업에서 교육부가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와 소통의 문제를 강조했던 것도 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소통’을 평가지표화한 것 자체는 교육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혐의를 배제할 수 없지만, 소통을 통한 구성원의 참여가 학교 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우리 대학은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뉴스레터 시스템, SNS계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SNS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원의 숫자는 대학가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든다. 그런데도 우리학교는 소통을 잘 못한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보유하고 있는 매체와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는 누군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메일 뉴스레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지난 19일에 발송된 총장 명의의 서신은 ‘프라임사업 이후’에 대해 가장 관심도가 높을 학생 구성원에겐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SNS계정은 각 SNS 고유의 문법에 맞는 게시물이 아니라 대학이 일방 설정한 단일한 문법을 좇는 게시물로 채워지고 있다. 경희대의 SNS계정은 ‘핫’하지 않다.

구성원이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소통’이라고 할 수 없게 됐다. 이제 소통이란 학교가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예상과는 달리 극히 일부의 구성원만 참여했던 지난 프라임사업 설명회의 살풍경했던 모습에서 대학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프라임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저조한 인식’이 아니라 ‘달라진 소통의 패러다임을 깨닫지 못한 대학’이 되어야 한다.

대학주보는 3년 전부터 매체다변화 및 모바일 최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온 끝에 독자 수가 증가하고 댓글 등 미디어 참여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효용을 잃어가던 전통적 외형’을 탈피해 혁신과 발전의 계기를 모색한 사례는 이외에도 숱하다. 엄숙한 국가기관인 부산경찰청이 SNS를 통해 이미지를 혁신한 사례나, 죽어가던 콘텐츠였던 한국민속촌이 적절한 소통방식 하나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진 자산을 재정비하고 오늘의 환경에 맞는 언어와 접근법으로 구성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번 대학주보 창간61주년 맞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가 갖는 대학 측에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면일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시간강사 처우 문제

“시간강사도 경희의 구성원으로”

양윤혁 〈정기자〉
yangyun0820@khu.ac.kr

지난 정기교과개편 이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에서는 해촉 시간강사에 의해 그들의 처우 문제가 표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후마니타스교육자협의회(교협)가 출범한 이후 어렵게 협의 자리가 마련됐다. 시간강사 측은 지난 학기 촉박한 시간으로 교과과정개편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마 측과 교협 측의 공식 만남에서 두 가지 요구안(▲교과과정개편에의 시간강사 참여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TF운영)을 제시했다. 당시 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요구안을 수용하는 한편 선결조건으로 상호 근거 없는 비방 금지 조항을 내걸었다. 하지만 강사 측은 회의 결과 학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협의는 결렬됐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후마니타스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해촉 이후 지금까지 약 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취재를 하면서 후마 측과 시간강사 측의 긴 논의과정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협의는 요원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마는 2011년도에 출범해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 후마의 성공적인 출범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모두가 인문학을 도외시할 때 우리학교는 시간강사, 객원교수, 전임교원들 모두가 보수와 지위에 상관없이 모였다. 인문학을 강화하는 방향의 교양대학을 성공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주 세미나를 열었다.

하지만 후마 발족 이전부터 우리학교를 위해 힘써 온 시간강사들은 이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시간강사들은 학교에 의해 정리됐다. 그들은 ‘후마니타스’를 내건 경희대조차 함께해 온 시간강사를 내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시간강사 처우는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는 행정 절차대로 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강사 측은 인간적인 측면과 학문공동체를 주장한다. 양자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대립처럼 보인다.

후마 측에 있어 시간강사는 학기단위로 계약하는 노동자다. 시간강사는 자신들을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며, 특히 후마의 교육철학을 볼 때 단순한 행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전인격적 판단에서 함께 후마의 일부로 인식해주길 바란다. 시간강사 중에는 후마 출범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사람들도 있다. 지금까지 교양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학기단위로 위촉된다고 해도 학교의 사정에 따라 큰 고민 없이 대체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자도 당장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먼저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시간강사 역시 우리학교의 교육의 한 축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케케묵은 이 문제를 풀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성원은 사업탈락보다 참여 배제에 더 불안하다

세시봉

김도엽 〈편집장〉

우리학교가 프라임사업에 최종 탈락한지 20일이 지났다. 하지만 사업의 여파는 ‘탈락’이라는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는 듯하다. 많은 구성원들은 대학이 결과와 관계없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지가 현실화될 지에 궁금해 하고 있고 발표 전에도 불만스러워했고 발표 후에도 답답해하는 그 ‘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있다.

미래정책원은 프라임사업을 준비하면서 62회의 공식 소통을 진행했다고 하며, 경쟁 대학과 비교해도 그 의지가 결코 부족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소통의 상대방인 구성원들은 우리신문이 진행한 프라임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소통을 잘못했다(매우 잘못했다 포함)는 쪽에 63.7%의 응답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가 1,500명을 넘긴 조사였기에 일부의 의견으로 보기도 힘들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단 구성원의 관심이 부족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단과대별로 열린 프라임사업 설명회에 평균 20~30명 정도의 구성원이 참여하는데 그쳤고, 지난 4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프라임사업 계획에 대한 정책투표 역시 투표 자체는 성립됐지만 투표율은 26.5%에 그쳤다. 구성원들이 사업에 대해 갖는 관심이 현저하게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구성원의 낮은 관심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어야 할 학교의 소통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애초 대학은 프라임사업 소통위원회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게시판 하나가 활발한 논의를 담보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단과대별로 시행된 설명회 또한 설명회 몇 일 전 급한 공지 문자를 돌렸을 뿐 구성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내용있는 소통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과 발표 이후에도 대학은 구성원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했다. 5월 3일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대학은 공식적인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주 목요일(19일)에야 처음 나온 총장 명의의 ‘유감’ 서신은 가장 궁금해 할 학생에게는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 준비 단계에서 발표 이후 마무리까지 어설프기만 하다.

발표 이후 어렵사리 취재가 성사된 지난 19일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많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탈락이라는 결과는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번 준비과정에서의 소통 경험을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만족스럽지 못했던 ‘소통’을 아쉬워하는 기색이었다.

이제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 중요하다. 앞서 거론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프라임사업 계획에는 반대여론이 압도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반대하는 쪽보다 10% 가량 높았다. 신 원장의 말처럼 향후 학문단위 재조정 과정에서는 이번 소통 부족을 거울삼아 생산적인 논의가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 구성원은 사업 탈락 그 자체보다 장기적인 학문단위 재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대학은 살펴야 할 것이다.

제2외국어 듣고 싶지만… 학점 때문에 ‘부담’ 절대평가나 P/F제도 고려 필요

미디어 여론동향 2016.05.09 ~ 05.20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제2외국어’구사가 자기계발 및 스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심도에 비해 실제 제2외국어 과목 수강을 꺼려하고 있다.(‘맘 편히 외국어 강의를 신청하고 싶어요’…제2외국어 강의 수강 망설이는 학생들/대학주보 온라인, 2016.5.13)현지 출신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인해 학점을 손해볼 수 있다는 걱정이 주요 원인이다.게다가 대부분의 강의가 해당 언어를 처음 접하는 것을 전제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 고등학교 등에서 미리 해당 언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해당 언어 유경험자의 수강신청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에 학점 평균에 영향을 주지 않는 2학점의 P/F 형태로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연세대 총학은 절대평가와 2학점 P/F 제2외국어 과목 개설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는 국제캠 예술디자인대학 모 학과의‘집합’제보글이 인기가 높았다. ‘오늘(17일) 저녁11시에ㅇㄱㅇㅎㅎ과 내부 대연습실에서 전체집합 있을 예정이다.교수님의 엄격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유 불문 집합과 기합이 이뤄진다’(#경희숲_14559, 2016.5.18)는 글에서 글쓴이는‘얼마 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학교 내부 집합과 기합에 대해 방송됐는데 그 모습이 우리학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뤄진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189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소식 접하자마자 사실 확인하고 대학주보에 제보했다’, ‘군기 잡고 싶으면 재입대 해라’,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학과가 있다니’ 등의 반응을 남겼다.

17일 저녁 강남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추모글도 큰 반향을 얻었다. ‘남혐이고 여혐이고 관심 없고 사람 생명이 우선인 문제인데 왜 포커스가 이상하게 가는지 모르겠다’(#경희숲_14573, 2016.5.19)는 글은 189개의‘좋아요’를 받았다. 137개의‘좋아요’를 받은 한 댓글은‘생명이 우선인 문제기 때문에 여혐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왜 여자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가’하고 사건을 비판했다. ‘사실 놀랍지도 않다’(#경희숲_14569, 2016.5.19)라는 글의 글쓴이는‘오늘 하루 앞으로 마주해야 할 깊은 공포를 경험했고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씩씩하게 걷는 것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고 썼다.학생들은 저마다‘이번엔 피해자가 여자였을 뿐,재벌2세가 날 찔러 죽이면 촉망받던 재벌2세의 인생이 불쌍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갈 나라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공론화 해야한다’, ‘여고시절‘어제 변태봤어’는 매우 흔한 주제였다’, ‘글쓴이와 댓글들을 보며 당신들의 목소리로 여성을 배워갑니다,고맙습니다’등의 의견을 남겼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혜경 | 편집장 김도엽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